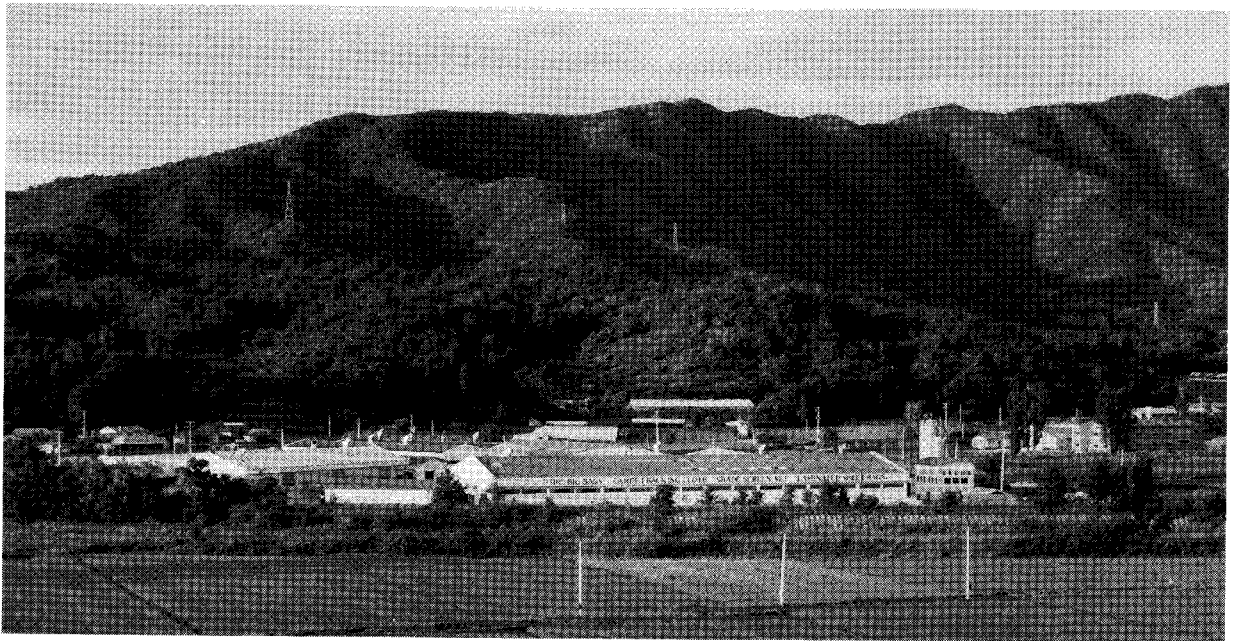


세계 수준의 컨테이너백 생산 — 높은 창의력으로 신소재 중점개발 —



▲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주화산업 전경

석유화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면, 마의 대용품인 폴리프로필렌이 개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컨테이너 백이 우리나라에 도입,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발달된 수송도구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컨테이너백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대시설 등 제반산업의 토대 위에 형성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에선 그 도입과 보급이 여타 운송수단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급신장하여 단순히 물건을 담은 역할에서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는 광고역할을 하기까지 성장하기를 8년

째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제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백 공장임을 자부하고 있는 주화산업주식회사는 기자가 방문한 날도 시장에 품질로 경쟁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지 10,000평 건평 4,000평 규모로, 멀리 보기에 빨간 지붕이 짝이나 인상적이었다.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인데다 사람도 드문 논밭길을 지나야 하지만 조용하고 전원스러움이 한껏 느껴지는 그곳에, 이제 막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어쩐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기획실 조재선 주임은 회의중입니다.” 라는 말에 시간을 보니 12시20분이었다.

먼저 이해경 기획실장과 인사를 나

누고 간단한 회사소개를 받았다.

“저희 주화산업주식회사는 1984년 5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돼 85년에 수출실적 181만불을 달성, 86년부터 주화의 주력 상품인 BULK CON BAG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87년에는 수출실적 500만불탑 수상 및 수출유공 국무총리 표창장수상을 하는 개가를 올렸고, 그 이래 계속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88년에는 1000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본사는 이곳 충북 음성이고 서울 사무소와 경남 울산, 전남 여천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주화산업주식회사는 박찬경 사장님 아래 전직원이 화합과 창의, 일치된 마음으로 동종업계 신소재 부문

만 중점 개발하여 선진국 수요에 충족하고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도 창립 멤버 중 한사람으로 회사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하다고 피력하기도 한다.

정문에서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주화산업 전경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누군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조재선입니다.”하면서 다가선다. 먼저 회사조직을 설명하며 크게는 사업본부, 생산본부, 관리본부, 기획조정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 산하 ISO 9000 TF팀이 신설되었고 자신은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업무와 함께 각종 홍보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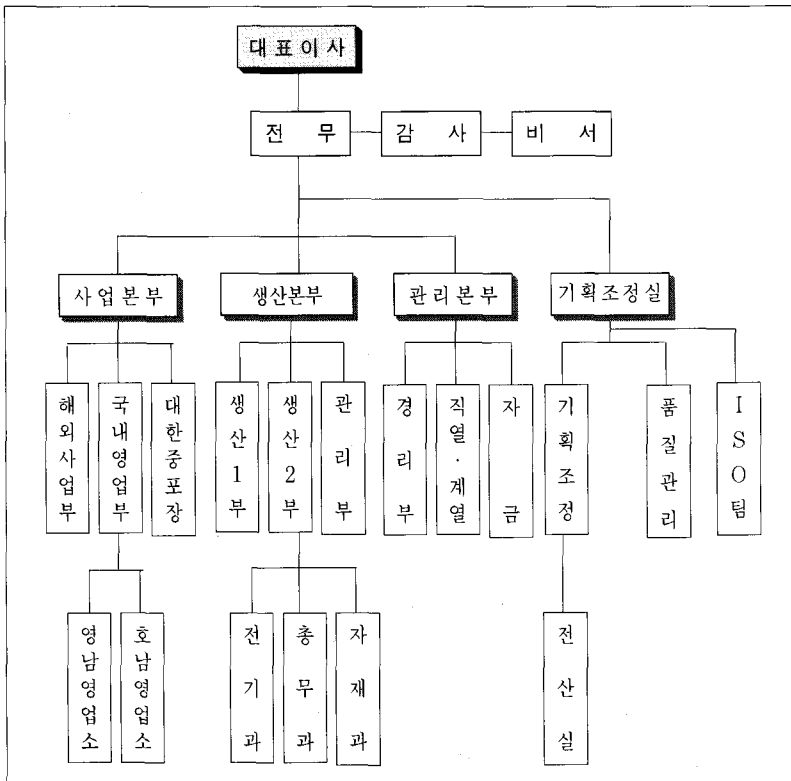
▲ 주화산업(주)의 주요생산품인 벌크 컨테이너 백

생산품을 보면 대형 컨테이너 포대(BULK CON BAG), 소형 방수포대(LAMI BAG), BULK SLING, SUPER BAG 등이 있다. 주요 생산

환경 고려하여 다회사용백 개발

주화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표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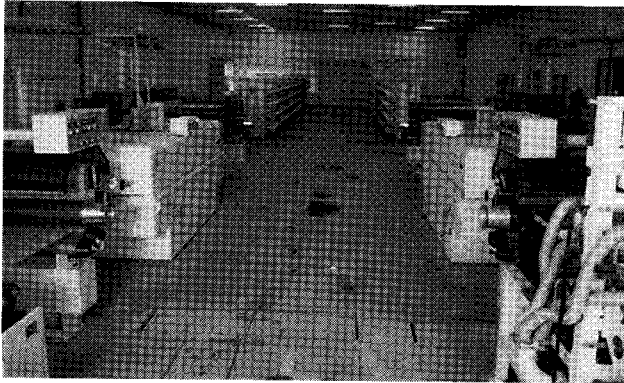


품인 BULK CON BAG은 안전적재중량이 500KG~2000KG이고 첨단 생산설비로 온라인화하여 100% 재생 가능한 고감도 재품을 생산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이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용도로는 화학제품, 시멘트, 레진, 비료, 광물, 곡물의 물류합리화를 위한 자동창고용으로 재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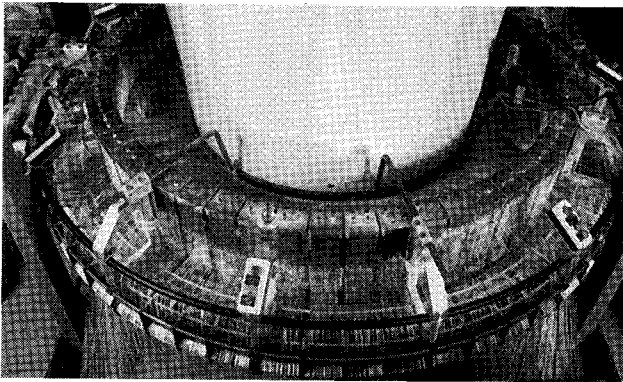
LAMI BAG은 PP와 PE가 라미 접합된 소형 포대로 시멘트, 케미칼, 레진, 비료 등의 벌크를 담은 포장재이다. 또한 주화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가공설비 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품질 일류화 완성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산망 구축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완전재생이 가능한 100% PP,PE를 개발하여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을 절감기 위해 일회용 백에서부터 10회 이상 사용 가능한 다회사용백(런닝백이라 일컬음)에 대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설비 투자 단계에 있다고 한다.

조주임은 직접 공장을 소개하며 컨테이너 백에 대해 무지한 기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먼저 간단한 제조 방법을 보면 주원료인 PP와 부원료를 혼합하여 원사를 생산하고 필요한 규격대로 직기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오더에 의하여 가격별로 방수, 방습이 필요한 것은 코팅을 하고 통풍성이 필요한 것은 생지를 이용하여 재단한다. 인쇄는 요구에 의해 실시하며 규격별 재단품을 조립, 가공한다. 가공된 제품은 전량 바코드(BAR CODE)를 이용하여 진수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 방식지로 포장한다. 포장된 제품은 지게차 또는 콘베어로 출고한다. 생산공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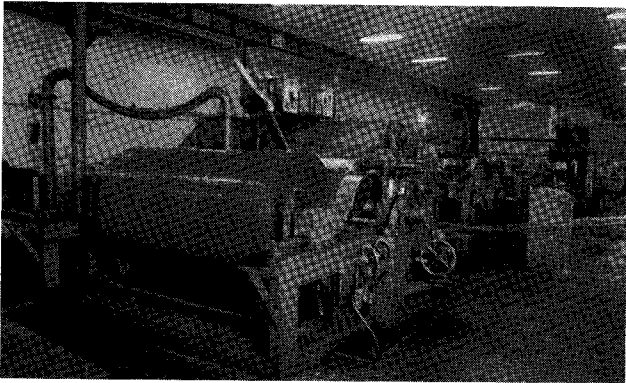
■ 컨테이너백 제조과정



← 제사



← 제작



← 라미네이팅



▼ 가공



▼ 검사

각지에 '개미군단' 조직

주화산업은 산업의 고도 성장에 따른 자재 유통구조가 점차 대형화, 기계화 됨에 따라 종래의 소형포장 중심의 유통체제에서 탈피하여 대형 벌크화 형태로 전환하였다. 특히 국내 유화업계의 자유화 조치에 상응한 신증설로 대형 포장재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구라파 등 선진국들의 노동의지 결여, 작업기피 현상으로 자체 생산으로는 수요 충족을 하지 못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해 수출오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한 수요 폭발로 생산이 따르지 못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제품시장은 매우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앞으로의 판매계획을 [표 2]에서처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체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주요 수출국으로는 단연 우리나라 총수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그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표 2]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품 목 명	신청년도(93)		1차년도(94)		2차년도(95)		3차년도(96)	
	국내	수출	국내	수출	국내	수출	국내	수출
BULK CON BAG	6,546	9,677	7,856	11,612	9,427	14,515	11,312	17,418
P.E. TARP		2,460		2,953		3,210		3,850
LAMI BAG	2,518	1,473	3,325	2,340	3,990	2,808	4,780	3,369
기 타	1,370	1,050	1,340	690	1,120	1,500	980	1,050
계	10,434	14,660	12,521	17,595	14,537	22,033	17,072	25,687

(주) 수출란에는 직수출과 로칼수출을 함께 기재

있으며 그밖에 유럽, 미국, 중동 등지에도 몇몇 업체들이 진출해 소량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화산업이 이처럼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특이한 조직체계 및 관리에 있으며 일관 생산체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원엔지니어링(천막, 창고 제작시공), 주양실업(벌크 컨테이너백 회수, 폐기, 재활용), 주성산업(원단 및 자재조달)을 두는 한편 지난 87년 부터 가공 하청업체인 개미군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개미군단은 종업원 5~30명 단위로 구성, 자기 마을로 분가시킨 것을 말하며 이들에게 기술교육은 물론 장소, 설비, 운전자금을 지원, 마을의 유흥인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들에게 월 2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 작업 안정화를 꾀하기도 하는 등 박찬경 사장의 경영방식은 여러 모로 독특하다.

이외에도 사내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결재자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결재하는 방식과 전산, 운전, 언어 자격증 등에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ISO 인증 취득 준비 한창

중국, 중동, 유럽에 공장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주화산업주식회사

주화산업이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경영효율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 일관 생산시스템 구축과 수직계열 기업형성, 가공 하청업체의 안정화 등이 놓여 있다. 현재 ISO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전체 직원이 매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ISO 인증 취득의 쾌거가 기대된다.

현재의 중저가 시장을 중고가 시장으로 접근 환경 측면을 고려한 재활용 품 생산체계 구축, 1회용 제품에서 여러번 재사용하는 제품생산에 주력할 중장기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백은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메리트는 떨어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전하는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의 추격도 예상돼 지금까지와는 달리 향후 몇년 뒤엔 그 시황을 예상할 수 없어 업계의 해외진출이 절박한 상태이다.

주화산업 공장 탐방을 마치고 서울로 가려는 기자에게 조주임은 잠시 기

다리라고 하더니 어느새 선물 꾸러미를 들고왔다.

“놀러 가서 뚝자리하면 좋습니다.”라며 공장에서 금세 만들어 온 것을 슬며시 내밀었다. 찾아온 손님에게 빈손으로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 시골인심임을 새삼 느끼며 고맙게 받았다.

기획실 탁자에 적힌 '기획조정실 5분 speech'

1. 주제 : 발표자 마음대로 (들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
2. 시행 : 매주 목,토 아침 회의시간
3. 시간 : 5~10분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기자에게 “점점더 각박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회사라는 집단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우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형식없이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라며 기자의 회사에서도 활용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지금은 회사 전체가 ISO 인증취득이라는 목표로 종업원 모두가 긴장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반팔을 어깨까지 걸어올린 근로자들이 공장안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머지 않아 ISO인증 취득의 쾌거를 올릴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었다.

잠재시장이 엄청난 컨테이너백 시장, 누군가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면 주화산업주식회사는 시원한 역전타를 날린 행운의 주인공일 것이다.

이선하 기자